

## 돼지에게도 보신을



윤 덕 영  
(덕영종돈장 대표)

7월의 긴장마 덕택으로 초여름의 더위는 어렵지 않게 보냈지만, 8월의 긴 더위와 9월의 늦더위에 양돈장의 관리인이나 돈공(豚公)들 모두 지칠대로 지쳐 있다.

입맛이 없어 물로만 헛배를 채워 체력이 떨어져 관리도 엉망이고, 돼지 또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사료를 섭취하고 거동이 귀찮아 누워만 있으니 자라기는 커녕 오그라 드는 형편이라 계획이 많은 분들의 마음만 줄이게 하는 계절이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두의 공통된 문제이므로 함께 풀어보는 뜻에서 농장에서 행하는 관리면과 사양방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당년의 여름철 사양관리만 철저히 하면 명년

의 4~6월경의 생산성(출하두수)은 높일 수 있으므로 여건이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실행해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30℃ 이상 올라가면 식욕이 떨어지고 시원한 곳을 찾아가게 되며 돈푼 깨나 있는 특수층은 에어컨 있는 자가용에 몸을 싣고 보신탕이다, 장어구이다, 스테미너에 좋다는 것만 찾아서 식도락을 즐기는데, 중소 규모의 양돈인들이야 물호스나 잡고 피서란 훌륭한 단어를 외면한채 돈공들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 금년 여름도 돼지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매년 4월중순부터 6월중순 사이에 돼지가 격이 좋은 현상은 이런 삼복 더위를 매년 개선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돼지 사양을 했기에 발정이 잘 안오고, 종부를 시켜도 수태가 잘 되지 않고, 재발이 많이 오고, 수태지의 증가율이 떨어져서 종부를 시키지 못하는등의 결과로 11월하순부터 명년 1월까지 분만 모돈수가 적고 산자수 또한 떨어지며 분만시 혹한기에 보온에 완벽을 기하지 못해 육성을 또한 떨어져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출하두수가 격감되어 자연히 돼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것들 양돈업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알고 있으리라.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돼지들에게도 시원하게 환경을 개선해 주고 여름을 잘 견디게 보신을 시켜주어야 높은 수익을 얻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씨돼지인 암돼지와 웅돈관리의 중요성이야말로 수익의 바로미터이다. 암돼지 사양관리 부터 살펴보면, 대부분의 농장에선 보편화된 방법으로 돈방내에 군사로 사육·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번식장애를 가져온다. 공간이 허락된다면 임신돈은 간단한 간이 시설로도 가능한 방목으로 사양하여 시원한 공기와 많은 시간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한더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에는 수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차광망을 설치하여 그늘에서 생활하게 하며, 사료는 오전 7시 이전에 1회 급여하고 오후 6시 이후에 2회 급여해 주면 식욕이 없어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하루에 세번 급여해 주는 농장에서는 사료량이 적지 않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같은양을 2회로 나누어 주면 아무 지장이 없고 공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아카시아잎이나 크로바 같은 풀을 두당 500g 정도 12시~1시 사이에 1회정도 급여하면 각종 비타민이나 무기물질을 자연상태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으며, 식욕을 높여주는 2중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뱃속의 태아도 튼튼해져 건강한 자돈도 생산하게 됨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이유모돈이나 후보돈도 같은 방법으로 사육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만 정확한 발정 점검과 중부가 문제가 되므로 실내에 군사를 시키되 수퇘지와 마주보게 하고 1일 2시간 정도는 샤워를 시켜주고 항상 환기가 잘되게 통풍에 만전을 기해 쥐야함을 잊지 않아야겠다.

물론 청초 급여와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는 양의 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1일 2회 아침 일찍, 저녁 늦게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웅돈(수퇘지)의 관리가 더욱 어렵다고 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

품종의 수퇘지를 사육하며 자체 자돈생산으로 비육돈을 생산하는 농장에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고심하는 경우가 많다. 정력이 강한, 원하는 수퇘지로 중부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주의가 따라야 하므로 개체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각 수퇘지의 특성과 성품을 파악하고 충분한 사료급여와 청초급여는 물론 비타민제의 별도 첨가와 아울러 유색종인 듀록과 햄프셔는 많은 시간 샤워와 수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항상 그늘에서 생활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중부는 오전 5시~6시 사이에 1회시키고 오후 6시~8시 사이에 2회시키며 3~4일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쉬게하고, 중부 시킨 날은 생계란이라도 주어 맘껏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어야만 활력 좋은 정충을 생산하여 건강한 자돈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여 중부의욕이 떨어져서 훌륭한 형질을 일찍 도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그외 자돈과 비육돈의 보신은 환기를 잘시켜주고 밀사를 없애 시원하게 해주며 사료에 비타민제를 첨가해주면 채식량이 많아져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포유자돈은 돈방이 건조하게 관리를 하며 포유모돈은 여름동안 5분정도에 먹을수 있는 양의 사료를 분사보다 연사(물로 섞어줌)로 3회정도 해주고 무기물질과 바타민제의 공급으로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모돈마다 정성어린 관리로 일관하면 이유후 발정제귀가 정상적으로 올 수 있음을 항상 잊지 않아야겠다.

